



조계종 환경위·불교환경연대, 울진 속사댐 예정지 답사

◇속사댐 예정지 왼쪽에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된다.

“수달 뛰놀고 은어 노닐게 그대로 뉘라”



◇한국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댐 건설 예정지 중 한곳인 경북 울진의 왕피천.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원시하천” 전국 유일의 1급수 하천’으로 일컫어지는 왕피천이 댐 건설 예정지 선정으로 물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하자 지역 주민은 물론 댐 예정지인 봉고산에 등을 맞댄 천축산의 불영사(주지 일운)는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다. 8월 17일 불영사 스님 70여명과 신도들은 왕피천의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댐 건설반대투쟁위를 결성했고, 24일에는 7만 군민과 불제자들은 왕피천에 댐을 건설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속사댐 건설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불영사를 중심으로 하여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태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은 9월 24, 25일 일일간 불영사를 방문하고, 댐 건설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손병일)의 도움을 받아 왕피천 현장답사에 나섰다.

현장답사에 앞서 성태스님은 일운스님과 손병일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에 불영사가 적극 활동해줘서 감사하다”며 “이번 답사는 댐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그곳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수생 환경보존과 함께 생태계 보전이라는 중요한 일에 뜻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피천은 56km에 이르는 계곡을 끼고 있어 수량이 풍부할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천연기념물 217호 산양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 또한 하늘다람쥐, 담비, 까치, 삼모사, 자라, 구렁이, 물두꺼비 등 각종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이다. 그리고 왕피천에서 뱀농을 수 없는 것이 은어와 연어떼를 만나는 일. 봄에는 황어, 여름엔 은어와 참치, 가을에는 연어가 이곳을 찾는다.

그동안 수백번도 넘게 왕피천을 드나든 손병일 댐 건설반대투쟁위원회장은 “이곳이야말로 가장 미래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댐건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의 자연 유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축산 불영사 일운스님,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성태스님, 댐건설 반대투쟁위원회 손병일 위원장이 속사댐 예정지 현장 답사에 나섰다.

56km 계곡-금강송 군락지 훼손 불보듯

‘왕피천 지키기’ 스님과 주민들 뭉쳤다

백곡히 들어선 송림을 들고 달려 건교부가 총저수용량 약 2억톤의 댐을 짓겠다고 발표한 댐예정지인 울진군 서면 왕피천 속사마을에 도착했다. 왕피천 상류부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마을은 댐이 건설되면 모두 수몰된다.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 2천5백여 명과 정부로부터 10억의 지원금을 받아 조성된 친환경농업 조성지구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건교부는 계곡이 깊은 이곳의 산세를 이용해 쉽게 물길을 막아 유역면적 215.3㎢, 저수면적 4.8㎢, 높이 118m의 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을 둘러본 답사단 일행은 수심이 330m에 이르는 댐 건설은 인근 계곡의 심각한 자연 생태 파괴와 더불어 왕피천 하류의 건천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황당한 발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댐이 건설되면 우리나라 토종소나무인 금강송의 최대 군락지인 이곳과 인근 소광리에 위치한 1,610ha 면적의

금강송 유전자보호림에 피해를 줄 것은 불보듯 뻔하다.

답사를 마친 후 일행 모두는 “자연과 공생하는 인간이 너무 과욕을 부리고 있는게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영사가 불교수행환경 지키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문제나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보다 포괄적 환경문제에 연대했다는 값진 의미를 확인하며 답사는 끝이 났다. 그러나 불교계 환경운동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게 될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는 불영사를 주축으로 서명운동, 가두캠페인, 왕피천 살리기 팻말행사 등을 펼쳐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한다. 원시의 적막을 담고 흐르는 왕피천의 맑은 물줄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a.com

“가꾸고 보존할 자연환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복입니다. 온 노력을 기울여 왕피천의 속사댐 건설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불영사 주지 일운스님의 속사댐 건립 반대 의지는 확고했



‘속사댐 반대’ 불영사 주지 일운스님

“자연환경 보존은 복짓는 일입니다”

다. 스님은 “우리나라 으뜸의 생태적 보존까지 갖춘 왕피천을 지키는 것은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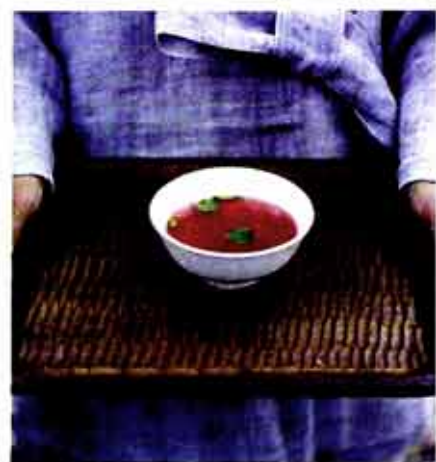
또한 스님은 “나부터 불한방을이라도 아끼겠다는 바른 마음과 실천이야말로 댐 건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며 “정부도 댐 건설 중심의 수자원 정책을 지양하고 다각적인 물 부족 해소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일운스님이 댐 반대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불영사 대종 80여 스님의 친환경적 생활태도로 볼 때 가장 있는다면 더 이상한 일이다. 세대를 사용하지 않고 밀가루를 풀어 설거지 하는 등 불교적 환경관에 투철한 스님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 내의 크고 작은 일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불영사로서는 망설일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일운스님은 “수많은 선지식들이 불영사를 장려하고 지켜왔듯이 불영사를 있게 한 이 계곡과 자연을 지키는 것은 스승님들의 노고를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또한 자연을 보존하는 일은 복을 짓는 신나는 일”이라며 “많은 분들이 왕피천 살리기에 뜻을 모으고 있으니 반드시 속사댐 건설계획은 백지화될 것”이라고 수행자다운 전망을 내놓았다.



◇속사댐 인근 지역인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삼층석탑(보물 498호).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오미자순채차

“스님, 저와 함께 하산하시죠. 이제 곧 눈이 쌓이면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노 선사는 눈 한번 뜨지 않고 앉고 있었다. 개화승 이동인이 스승 대치 거사를 마지막으로 볼 때였다. 이동인은 준비해 간 식량만 내려놓고 혼자 하산해야 했다. 대치 거사의 본명은 유흥기(劉興基)로, 당시 풀도 없는 대현(大賢)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

다. 그가 머물던 서울 관동동은 청포(淸浦, 葛池), 신밭(新圃, 蕪圃) 등을 파는 전(田)들이 많아서 북촌(北村)의 양반들은 체면 때문에 잘 찾지 않았던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사대부가 귀인(貴人)들이 행차하고 부마(夫馬)까지 머리를 낮추어 찾아들었다. 그중 고종이 오직 그의 달만 믿었다는 김육과 화종의 사위 박영호, 승지 서광범, 중국 원세개

기침에 좋고 장복하면 활력

의 통역관이던 오경석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었던 것이다. 대치 거사의 초마 주위에 긴장이 감돌고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던 그날은 갑신정변 쿠데타 전야로 주역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들었다.

“제군들은 일본의 정략을 아는가?” 대치 거사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기적 보병 일백이 청병(淸兵) 5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할게. 때를 기다리며 불교승신(佛敎崇信)으로 일하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대치는

말없이 차를 끓여 건네었다. “이 차맛이 내 가슴일세. 이런 오미자 열매인데 음식 중에 이만한 것이 없어 오늘 그대들과 마지막 음식을 삼고 싶네.” 대치는 이미 앞일을 예견하고 있는 듯했다. 다음날 삼일천하가 선포되고 혁명이 성공하는 듯했지만, 대치는 광동전에 서 오미자 몇되를 사 급게 가루로 만든 다음 어둠을 들고 총총히 한양을 빠져나가 오대산을 향했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모세의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오미자액 4컵, 순채 20그램, 꿀 1컵, 녹두녹말가루 3큰술

요리법 ① 미지근한 물에 오미자를 우려낸 물에 꿀을 타서 차게 해준다. ② 순채일에 녹말가루를 입혀 끓는 물에 살짝 데쳐다가 재빨리 건져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뺀다. ③ 이를 오미자물물에 띄워준다.

재료 ① 호흡기계통의 기능저하를 개선하고 기침, 가래를 없앤다. ② 체력 증진, 지방강장제 ③ 피로회복 및 눈을 밝게 한다